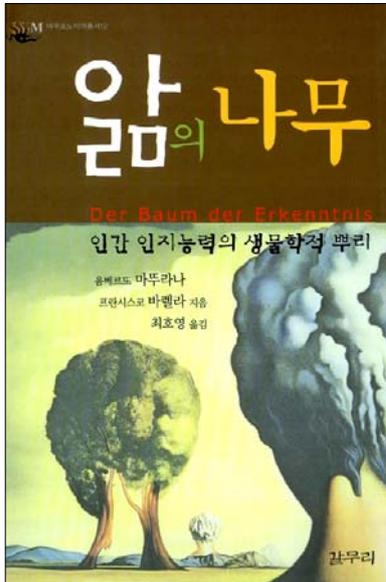




## ■ 자기생산체계, 자율성, 구성주의 - 『얹의 나무』

최 호 영

### 얹의 나무?



『얹의 나무』 표지. 이미지 출처: 알라딘

『얹의 나무』(갈무리, 2007)는 칠레의 생물학자 움베르토 마투라나(Humberto Maturana)와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몇 차례에 걸쳐 스페인어로 강연한 것을 토대로 펴낸 『El árbol del conocimiento』(1984)의 독역판(1987)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강연 형식으로 준비된 만큼 저자들의 여러 글 가운데서 가장 평이하고 또 포괄적으로 그들의 견해를 서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저자들은 무엇보다도 생물을 자기생산체계(autopoietic system)로 규정하고 이런 관점에서 생물이 자율적 존재이며, 생물의 인지활동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한

다(bring forth)는 주장으로 유명하다. 저자들의 이런 주장은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자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특히 인식론에서 실재론(realism)에 대립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접근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 책의 제목인 ‘앎의 나무’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따온 말이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 더 이상 순진무구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듯이, 인간의 앎 또는 인지활동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재 또는 행위와 떼어놓을 수 없는 통일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핵심 주장이다. 책의 한 구절을 읽어보자.

독자들은 마치 ‘사실’이나 물체가 저기 바깥에 있어서 그것을 그냥 가져다 머리에 넣으면 되는 것처럼 인식현상을 보아서 안 된다는 사실을 늘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려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어떤 물체가 ‘저기 바깥에’ 있다는 경험은 인간의 구조에 의해 특수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이런 뜻에서 인간의 구조는 기술(description) 활동을 통해서 생겨나는 ‘물체’의 가능조건이다.

이러한 순환성, 행위와 경험의 뒤얽힘, 한편으로 우리의 존재 방식과 다른 한편으로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 이것들은 다시 말해 **인식활동이 세계를 산출함**을 뜻한다. [...] **함은 곧 앎이며 앎은 곧 함이다.**(본문 33~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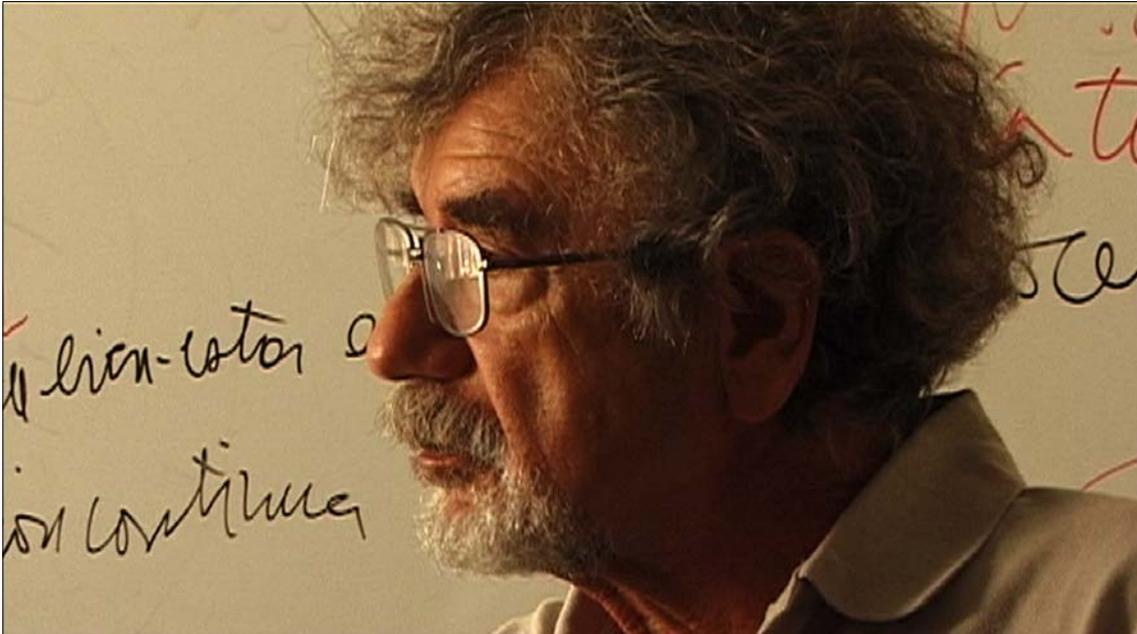
## 자기생산체계의 자율성

저자들은 생물이 자신의 구성요소를 스스로 생산하고 유지하는 자기생산체계라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진핵세포를 들 수

있겠다. 진핵세포는 세포핵, 여러 세포 소기관, 세포막 등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구조물들은 세포의 물질대사를 통해 핵산, 단백질 같은 화합물들을 만들어내며, 이 화합물들은 다시 이것들을 만들어낸 구조물들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저자들은 이렇게 자기생산체계로 이해된 생물이 자신의 작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실현하므로 자율적인 체계, 곧 “자기가 따르는 법칙이나 자기에게 고유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체계”(59쪽)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들의 주장을 면밀히 따져보면, 생물이 자율적 체계인 까닭은 자기생산체계 때문이라기보다 구조적으로 결정된 (structural determined) 체계, 곧 “체계의 변화 전체가 그것의 구조에 따라 [...] 결정되는 체계”(114쪽)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다시 말해 “체계의 변화 전체가 그것의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체계”와 “자기에게 고유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체계”, 곧 자율적 체계는 서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평자의 의구심이 맞는다면 저자들이 제안한 자기생산체계라는 개념의 이론적 의미는 많이 퇴색된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결정된 체계는 자기생산체계뿐만 아니라 그것의 반대 개념인 타자생산체계(allopoietic system)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평자는 구조적으로 결정된 체계, 자율적 체계, 자기생산체계라는 세 핵심 개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저자들 이론의 큰 문제점이라고 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경계의 불분명함 때문에 생물을 자율적 체계로 보는 저자들의 관점이 생물학의 범위를 넘어 여러 학문에 응용될 수 있었는지 모른다. 예컨대 학생을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로 보는 구성주의 교육학, 심리적인 문제



움베르토 마투라나

를 개인 또는 가족이라는 자율적 체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처하려는 체계치료학, 경제, 정치, 과학 같은 사회적 체계들을 자율적 체계로 보는 관점에서 사회적 과정을 기술하려는 사회체계이론 등은 모두 저자들의 이론으로부터 작지 않은 영감을 받았다.

#### ‘인식 = 세계의 산출’ 또는 구성주의 인식론

저자들은 인간 또는 생물의 인지활동이 “저기 바깥에 있는 **바로 저**’ 세계의 표상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세계를 끊임없이 산출하는 일”(7쪽)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흔히 학계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 또는 묘사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보는 실재론적 인식론에 대립해) 지식이란 인식자(knower)의 구성물(construct)일뿐이라고 보는 구성주의 인식론으로 해석되

였으며, 저자들이 일부 촉발시킨 실재론과 구성주의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통적 관점에서 인식자의 주관성은 ‘객관적 진리’의 방해요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구성주의자들은 이런 인식자의 주관성 또는 주체성이 지식의 방해요인이라기보다 **가능조건**이라고 보며, 이런 의미에서 성찰적인(reflexive) 인식론을 추구한다. 물론 이런 유형의 성찰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프로이트는 인식자의 무의식적 조건을 문제 삼았고, 마르크스는 인식자의 계급적 조건을,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적 조건을, 여성주의자들은 성적 조건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비해 생물학자인 저자들은 인식자의 생물학적 조건을 문제 삼으면서 인간이 생물로서 지니는 존재적 특성이 인간 인지활동의 가능조건임을 밝히려 하였다.

평자는 우리가 세계(또는 세계의 일부)를 제대로 반영 또는 묘사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실재론적 또는 상식적인 견해를 완전히 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구성주의가 실재론에 대립하는 형태로 전개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의 생활환경은 더 이상 자연물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인공물 또는 구성물들로 가득차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주의가 낳는 환경파괴처럼 인간의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인식에서 볼 때 구성주의적 접근은 철학적 정당성이 아니라 사회학적 설득력을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여전히 소중한 생각거리를 제공한다.